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회장 沈永秀)는 결핵학 및 호흡기질환의 연구 발전을 도모하며 한국에서의 결핵병 근절을 위하여 1953년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됨과 더불어 그 집행부에 학술부를 설치하므로써 학회의 전신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당시 결핵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보건계 인사들은 6.25동란 이후에 이미 존립했던 조선결핵예방협회, 기독교의사회, 한국결핵협회 등 민간 항결핵 사업체를 통합하고 조선결핵예방협회 회장이던 박병래박사를 위시 고병간, 김

10월 15일 대한결핵학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당시 결핵협회 감사겸 학술위원이던 송호성박사를 회장에 선출하였다. 1962년에는 의협산하 분과학회(현 의학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1989년 6월 27일부터 학회는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지향하여 학회명칭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大韓結核 및 呼吸器學會)로 변경하였다.

95년 현재 회원수는 평생회원 3백80명, 정회원 40명, 준회원 5명이며, 1977년 부산지회의 결성을 시작으로

61년 창립 ... 결핵퇴치연구에 앞장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53년 발족한 결핵협회를 모체로 하여  
1961년 발족한 대한결핵학회는  
1989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로 명칭을 바꿔  
4백여명의 회원이 결핵퇴치를 위해  
왕성한 학술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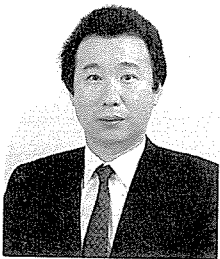
1985년에는 대구·경북지회, 1987년 광주·전남지회, 1989년 전북지회가 결성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학술활동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초대 회장으로 고(故) 송호성박사가 취임하면서 이전까지 결핵협회 주관이었던 학술대회를 62년 추계학술대회부터 학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대한결핵학회의 명칭을 처음 사용한 62년 12월 1일 학술대회는 연세의대에서 개최되어 '결핵접촉 소아에 대한 예방적 화학요법' 등 20개 연제가 발표되고 증례 토론이 있었다. 이후 매년 춘·추계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춘계학술대회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설악산, 경주, 제주도 등을 순회하면서 심포지엄 위주로 개최되고, 서울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는 발표연제의 증가로 1989년부터는 발표장을 '결핵'과 '호흡기질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995년 가을 제 81차 학술대회부터는 발표기간이 하루만

명선, 김종인, 문창모, 박하룡, 송호성, 윤유선, 윤일선, 이기봉, 이성행, 이재규, 이갑수, 이종학, 정구충, 최상채, 최영대, 최창순, 한보성, 한응수, 허근 등 제세를 발기인으로 연세의대 소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케 된 것이다.

### 초대 회장에 송호성박사

그러나 사단법인체인 결핵협회 학술부로서는 대내외적으로 학술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기때문에 결핵분야에 관심을 가진 송호성, 이찬세, 김기호, 이찬범 등이 주동이 되어, 1961년



沈永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장〉

으로 연장될 정도로 호흡기분야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 54년부터 학술지 계속 발간

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학술지는 1954년 결핵협회에서 발간한 「결핵」이 그 시초가 된다. 54년 1회에 2천부를 발간한 결핵전문 학술지 「결핵」은 연 1~2회 발간되다가 62년 학회로 이관되면서 3회에 걸쳐 3천부가 발간되어 회원 및 관련기관, 국제항결핵연맹국, 각급 도서관에 배포되었고, 이때부터 제호가 「결핵 및 호흡기질환」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64년까지 2~3회 발간되다가 66년부터 연 4회 기간으로 발간, 1992년부터는 연 6회 격월간으로 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결핵 및 호흡기질환」은 그전의 「결핵」과 함께 우리나라 전문학회지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학술전문지중의 하나이며, 국제적으로는 EMBASE(Excerpta Medica)에 원저논문의 초록이 게재되고 있다.

정기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외에도 호흡기질환의 연구, 진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1년부터 호흡기질환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와 전국 각지의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결핵관리사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서울에서 연 7회 월례집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1백6회에 이르고 1991년 추계학술대회부터 워크숍을 개최하여 1회 '폐기능검사', 2회 '인공호흡기', 3회 '기관지내시경'으로 진행되었고 1995년 추계학술대회에는 '비외과적 침습적 치료술'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회원의 연구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79년부터 유한양행의 협조

로 호흡기학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해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유한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회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1986년부터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연구비를 수여해오고 있으며, 1995년 추계학술대회부터는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다. 또 학회차원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0년에는 「결핵 및 호흡기학 용어집」을 발간하였으며, 92년 '전국 유육종증 실태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94년 '비결핵항산균증 실태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95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전국 실태조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결핵근절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67년 결핵전문의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결핵전문의 교육이 실시되어 67년에 74명의 첫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95년까지 1백94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본 학회는 일찍이 국내학회의 국제화, 세계화에 앞장서서 국제학술교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결핵에 대한 새로운 지식함양과 발전하는 국내 항결핵활동의 구심체로써 결핵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바, 현재 국제항결핵호흡기질환연맹(IUAT에서 1986년 IUATLD로 명칭을 변경), 미국 흉부질환학회(ATS), 유럽호흡기학회(ERS), 아시아태평양호흡기질환학회(APSR), 미국흉부질환의사학회(ACCP) 등 국제학회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 학술상 제정 ... 용어집도 발간

결핵연구면으로는 IUATLD에 결핵협회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976년에 IUAT 동부지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호흡기 질환으로는 1959년에 ACCP 한국지부를 결성하고 미국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1975년 10월15일~19일까지 제4차 아시아태평양흉부질환학회(ACCPC)를 국제흉부질환학회 한국지부, 대한순환기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가 공동으로 유치, 이 대회에는 14개국에서 3백여명의 관련 학자가 참가하였고, 92년 10월4일~7일까지 본 학회가 중심이 되어 제12차 APCDC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25개국에서 9백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현재 국제학술대회가 미국, 유럽지역으로 양분되어 개최되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성이 불충분하고 독자적인 학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1988년 아시아태평양호흡기질환학회(APSR)가 창설되어 1988년 10월 제1차 학술대회가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본 학회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미국의 ATS, 유럽의 ERS에 버금가는 국제학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의 향상과 국가 결핵퇴치사업의 성공으로 결핵의 유병률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학회의 주된 목표였던 결핵퇴치가 성공단계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산업화에 따른 호흡기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연구 및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과학회에서 시행하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내과전문의중 호흡기질환을 전문으로 연구 진료하는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호흡기내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㉟